



시민공론화 시나리오워크숍_2일차

✓ **보도일시**

2020. 11. 09.(월)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위 원 장		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
간 사		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
시민의숲1963추진단장	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총 매 수	2매	
사 진	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

시나리오워크숍 종료...11일 설문조사 시작

- 제3차 시나리오워크숍 개최, 정책도시관리, 도시계획, 지역경제, 시민 4개 그룹 30명 참석
- 제2일차(10월 24일) 결과로 도출된 시나리오(안)에 대한 장단점, 중요도, 실현가능성 논의
- 최종 선정한 시나리오(안) 3개에 대하여 이어서 전주시민 무작위 1,500명 공론조사 추진

-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미래상을 찾는 시민공론화 과정의 하나인 시나리오워크숍이 3개의 시나리오(안)를 결과물로 만들고 마무리됐다.
- ‘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’(위원장 이양재, 이하 위원회)는 7일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제3일차 시나리오워크숍을 개최했다.
- 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마지막 날인 이날 제2일차 워크숍(10월 24일)에서 결정된 시나리오(안) 장·단점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 3개의 시나리오(안)를 최종 선정했다.
- 선정된 시나리오(안)는 △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△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△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이다.
- 위원회는 이날 정책·도시관리, 도시계획, 지역경제, 시민 등 4개 그룹별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 시나리오(안)를 놓고 장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.

- 위원회는 3개의 시나리오(안)을 놓고 이달 안에 시민공론화 마지막 단계인 공론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.
- 공론조사는 전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벌인 후 1500명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시민 설문조사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유무선 방식으로 진행되며,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는 12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.
- 위원회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쳐 나온 시민들의 공론 의견을 위원회 결정(안)으로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. 이렇게 도출된 결정(안)은 공론화위원회의 마지막 검토 후 전주시에 권고안으로서 제출된다.
- 이양재 위원장은 “3일간의 장시간 진행하였던 시나리오워크숍에서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각계 참여자분들의 논의 끝에 마침내 3개의 시나리오(안)이 도출되었다”면서 “남은 과정에서도 전주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 위원장은 이어 “워크숍에서 선정한 시나리오(안)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달 중순부터 3주간(11. 11.~ 12. 4.) 유무선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의견수렴을 위한 전화 연락 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 1963추진단(063-281-2712, 2713)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.